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떠나 보내다'라는 의미로서 일 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 중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 광야로 떠나 보낸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사탄에게 보낸다' 또는 '사탄이 사는 광야로 보낸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사셀을 위하여' 라든가 '아사셀에게' 라는 표현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사탄에게 보내는 제물이라고 보는 시각은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달래거나, 또는 사탄 마귀와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분이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기 15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레16:29에 언급된 "일곱째 달 십일"은 바로 지난 한 해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1월10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시작 즉 1월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력으로 1월이었던 이 달이 지금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7월이 된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속죄제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염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염소 두 마리를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 속죄소 즉 시은좌 동쪽과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이 속죄제를 마치고 나오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여호와께 아뢰는 후에 두 손

으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여 그 염소의 머리로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시킨 사람에게 이 염소를 끌고 가게 하여 광야에서 놓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넘겨 받은 이 아사셀 염소가 눈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면 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간 지은 죄를 속죄하여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마리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피가 뿌려진 속죄제물로 뽑힌 염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염소가 속죄제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값이 지불된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사셀 염소도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게로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1:29)"이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사53:6)".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우리의 죄 값이 그 피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동시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우리의 죄가 넘어감으로 전가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두 염소가 같은 의미입니다. 두 염소 모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인 것입니다. 두 염소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아니더라도 죄를 속죄하기 위한 번제나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드리는 대속죄일이 또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혹시라도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지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차원에서 대속제일을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더불어서 먼저는 우리의 죄가 그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하는 인간의 죄악사(罪惡史)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인생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과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레18장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인생들의 죄가 중다(衆多)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죄악과 범죄라는 것이고 그 죄악의 양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그 만큼 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레18장부터 말씀에 보면 차마 성경에 담긴 내용이라고 믿기에 어려울 만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에서 오는 죄악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과거를 돌아봐도 죄악이요 미래를 내다봐도 온통 죄악뿐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 마는 악한 인생일 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에 내용들은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6-18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의 간음(20절)이 있고 같은 성별끼리 관계를 갖는 동성애(22절)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23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범하기 쉽고 유혹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에 관한 죄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실제로 행하는 죄뿐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으로도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외 없이 온통 이러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러한 성적인 죄악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은밀한 죄라 할 수 있는 성적인 범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주님을 떠나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듯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더럽고 악한 죄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더럽고 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악

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받아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인 죄인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